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번역에 대한 국내 언론 담론 분석

유한내(전남대학교)

1. 서론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의 작품과 한국문학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독일, 체코, 미국, 스웨덴,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강의 작품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논의했으며, 이러한 해외의 반응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강수경, 2025; 박문정, 2024; 박정원, 2024; 서유정, 2024; 유선비, 2024; 최성은, 2024; 하은선, 2024; 홍재웅, 2024; Choi, 2025; Hu & Xiong, 2026). 이러한 관심은 한강 개인과 그의 작품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번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언론과 관련 기관에서는 한강의 수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다(김용래, 2024; 사지원, 2024; 차형석, 2024).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학계에서는 문학작품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세계문학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Casanova, 2004; Sapiro, 2016). 그러나 번역이 실제 언론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평가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

이다. 특히 노벨문학상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평소 잘 드러나지 않는 번역과 번역자의 역할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주로 텍스트 차원에서 ‘어떤 텍스트적 특징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라는 주제에 머물러 왔다(고윤경, 2025; 김지윤, 2025; 등옥룡과 류의, 2026; 임소라와 성효정, 2024; Kim, 2025; Lee, 2026).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 달리 국내 언론에 나타난 번역 담론에 주목한다. 번역에 대한 학계 밖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 내부의 논의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번역에 관한 정보와 논의를 접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언론 보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천종성과 이준호, 2024, pp. 69-70). 이에 본 연구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 언론에 나타난 문학번역 관련 담론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언론이 수상과 번역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으며, 그 초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학번역 제도와 노벨문학상

2.1 국가는 왜 문학번역에 개입하나?

국가가 번역에 개입한다고 하면 법원, 병원, 경찰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번역 정책은 공공서비스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Meylaerts, 2011, p. 166). 문학번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학번역은 개별 번역자의 언어 전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택, 번역, 출판, 해외 유통 과정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제도적 활동이기 때문이다(Carbó-Catalan, 2023, p. 18).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국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Jiang & Ma, 2022; Kvirikashvili, 2022; Levitt & Shim, 2022; Shim, 2023). 즉, 문학번역은 개인의 번역 행위를 넘어 국가와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문화정책의 영역

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카르보-카탈란(Carbó-Catalan, 2023)은 문학번역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 1925년부터 1946년까지 운영된 국제지적협력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이하 IIIC)를 소개한다. 유네스코의 전신인 IIIC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번역작품 색인을 제작하고, 번역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번역상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pp. 17-18). 이는 문학번역이 개별 번역자와 출판사의 자율적인 활동을 넘어 국제기구가 번역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문학번역의 제도화는 199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번역 지원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Hedberg & Vimr, 2022, p. 753). 특히 자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번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를 “공급 주도형 번역(supply-driven translation)”이라고 한다(Vimr, 2020). 이는 해외 출판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여 자국 문학의 해외 출간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원작 문화와 국가가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Vimr, 2020, p. 57). 공급 주도형 번역은 실제로 주변부 문학이 해외 독자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경로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chwartz & Edfeldt, 2022).

2.2 노벨문학상은 번역과 어떻게 연결되나?

앞서 살펴본 번역 지원 정책은 문학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인정받고 국제적인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이러한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작품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문학상과 같은 시상 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잉글리시(English, 2005)는 이러한 현상을 ‘시상 문화(prize culture)’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시상 제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문학과 예술을 국가 간 비교와 경쟁이 가능한 영역으로 조직해 왔다. 그가 제시한 “국제 스포츠로서의 예술”(pp. 249-263)이라는 비유는 문학상이 작품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규칙과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다.

이러한 시상 문화에서 노벨문학상은 “문학계의 경계를 넘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자 “문학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사실상 독보적인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Casanova, 2004, p. 147). 특히 노벨문학상은 수상 발표와 동시에 세계 출판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권위를 가진 제도로 기능한다(English, 2005; Sapiro, 2023). 베누티(Venuti, 2005, p. 802)는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세계 각국의 출판사들이 번역과 출간을 서두르며,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에 번역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노벨문학상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세계 출판시장과 번역시장을 움직이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물론 노벨문학상이 번역의 과정이나 번역자의 노동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수상의 주체 역시 번역자가 아니라 작가이며, 노벨문학상이 번역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비영어권 문학이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적인 문학의 장에서 유통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번역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번역되지 않으면 세계 문학장에 소개되고 평가받을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은 세계문학장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Casanova, 2004).

2.3 한국 문학번역의 제도화와 국제 문학상 담론

한국의 문학번역 지원은 1990년대 이후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부로 확대되었으며(Shim, 2023, p. 58),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화되었다(심재기, 2003, p. 347).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화의 역사 자체가 아니라, 번역 지원이 한국문학의 국제적 성취, 특히 국제 문학상 수상과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문학번역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제 문학상 수상, 특히 노벨문학상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목표로 여겨져 왔다(유한내, 2017, p. 138). 이에 따라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어떤 작품과 작가를 선정하여 어떻게 번역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pp. 132-135).

그러나 국제 문학상 수상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어 왔다. 노벨문학상은 유럽 중심주의, 정치적인 요소, 순수문학 중심의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그 권위와 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Anderson, 2013; Jewell, 2000).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매년 노벨문학상 발표가 큰 관심을 모으고, 한강의 국제부커상 수상 이후에는 부커상에 대한 관심까지 확대되는 등 국제 문학상을 한국문학의 성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이형진, 2024, p. 117). 이러한 현상은 조재룡(2012, p. 518)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국가 대항 축구경기에 비유하며 비판한 국가주의적 성과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최종 목표로 삼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작가에게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비판했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번역은 작품의 문화적 가치나 번역 자체의 의미보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는 번역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동안 국제 문학상이라는 목표와 연결되어 논의되어 온 번역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상 이후 언론이 번역과 번역자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했으며, 그 초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언론에 나타난 문학번역 담론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일인 2024년 10월 10일부터 자료 수집이 완료된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내 언론에 게재된 관련 기사이다. 수상 직후의 집중적인 보도뿐 아니라 이후 번역 담론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다시 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설정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구글 검색엔진을 활용했으며, ‘노벨문학상’, ‘노벨상’,

‘번역’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관련 기사를 수집했다. 본 연구는 관련 기사
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
집된 기사를 대상으로 번역 담론의 특징과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 언론사나 매체 유형을 사전에 한정하지 않고,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된 국내 언론사의 기사 가운데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기사
를 수집했다.

분석 범위는 뉴스 보도로 한정했다. 특정 필자의 논평이나 주장을 중심
으로 하는 사설, 칼럼, 기고, 시론은 뉴스 보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했으며, 내용이 동일하게 재생산된 기사와 단순한 수상 사실 전달에 그
친 기사도 제외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대상
기사는 수상 직후(2024년 10월 11일), 수상 후 한 달(2024년 10월 12일~11월
10일), 수상 한 달 이후 약 1년 5개월(2024년 11월 11일~2026년 4월 30일)의
세 시기로 구분했다. 첫 번째 시기는 수상 직후의 즉각적인 언론 반응을, 두
번째 시기는 초기 관심이 확산되는 과정을, 세 번째 시기는 일회성 보도가
아닌 장기적인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했다. 특히 수상 후
한 달 동안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후에는 기사 수가 크
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제 보도의
집중도와 담론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한 달을 초기 담론과 장기 담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했다.

분석 과정은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 2006, 2019)의 반성적 주제
분석(reflexive thematic analysis) 절차를 참고했다. 선정된 기사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면서 번역의 역할이 무엇으로 설명되는지, 수상의 공로가 누구 또
는 무엇에 귀속되는지, 번역의 성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향후 번
역에 어떠한 역할과 과제가 부여되는지를 중심으로 의미 패턴을 확인했다. 이
후 유사한 의미를 보이는 기사들을 묶어 시기별 주요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했다. 본문에 제시한 기사
와 인용문은 각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주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구체적인 사
례로 제시한 기사 20건은 1차 자료로 참고문헌에 수록했다.

4. 수상 이후의 번역 담론

4.1 수상 직후: 번역과 번역자의 공로 강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024년 10월 11일 하루 동안 총 19건의 번역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들 기사를 반복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번역자 개인의 역할과 공로에 대한 조명이었다. 전체 19건 가운데 9건에서 데бора 스미스가 기사의 제목이나 주요 내용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다음은 일부 기사 제목이다.

‘아시아 女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뒤편 영국인 번역가 있었다(허인희, 2024)

한강 노벨상에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도 주목... ‘채식주의자’ 출판사 접촉에 홍보까지(김민국, 2024)

“한글날 다음날 한강 노벨상”...한국어 독학 英 번역가도 주목(김일창, 2024)

이러한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번역자 개인의 역할을 노벨문학상 수상의 배경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즉, 노벨문학상 수상이 작가 개인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특정 번역자의 선택과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지난 2017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을 때 공동수상자가 바로 스미스 번역가이다. 당시 한국문학번역원이었던 김성곤 서울대 명예교수는 “스미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했다면 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스미스 번역가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데 문학계의 이견은 없다. 당초 ‘채식주의자’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해외에 소개될 작품으로 선정해 번역이 시작됐지만, 에이전트인 바바라 지트워가 번역가를 스미스로 선정해 번역자가 바뀌었다. 스미스로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의 ‘노벨문학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김일창, 2024)

이처럼 한강 작가의 수상 직후 보도에서는 번역자 개인의 선택과 경험, 역할을 중심으로 수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데보라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보도와 함께, 이 시기에는 번역 자체의 역할과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들도 나타났다. 다음은 일부 기사 제목이다.

노벨문학상 영예는 번역의 쾌거이기도 ... “이제부터가 진짜” (김용래, 2024)

노벨상 수상 뒤엔 번역의 힘 ... 한강 작품 낸 佛출판사 “언젠가 받을 거라 확신” (곽아람, 2024)

“그동안 한국 문학 번역해온 시도가 결실 맺었다” (사지원, 2024)

데이터 수집 시 검색어를 ‘노벨상’과 ‘번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모든 기사는 당연히 번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의 쾌거’, ‘번역의 힘’, ‘번역해온 시도가 결실 맺었다’ 등의 표현은 번역이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을 넘어, 노벨문학상 수상을 번역이라는 행위가 축적해 온 성과로 설명한다. 즉, 수상 직후의 언론은 노벨문학상이라는 성취를 작가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번역과 번역자에게도 그 성과의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

4.2 수상 후 한 달: 개인의 공로에서 제도적 성과로

수상 이후 한 달간 총 34건의 번역 관련 기사가 작성되었다. 수상 다음 날 이루어진 보도가 번역과 번역자 개인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후 한 달 동안 게재된 기사들은 보다 충분한 취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기반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수상의 공로를 특정 번역자 개인에게 돌리기보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번역 지원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화된 것이다. 물론 일부 기사에서는 개별 번역자의 작업과 경험을 다룬 심층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번역자 개인보다 번역 지원 제도와 정책, 번역 생태계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사 비중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언론은 번역 지원 체계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를 통해 가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상 이후 한 달간 작성된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나’, ‘얼마나 많은 작품이 해외에 소개되었나’, ‘수상 작품 수는 몇 개인가’ 등 번역이 숫자를 통해 설명된다는 것이다.

한강 작가의 경우, 2010년에 〈채식주의자〉가 베트남어로 번역된 게 처음이다. 2015년 〈채식주의자〉영역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된 게 10권 정도였다. 한강 작가 작품이 28개 언어로 82건 번역되었는데,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에 72건이 번역 출간된 것이다. 2015년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9년 만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거다. 벼락같은 축복이다. (차형석, 2024)

여기서 번역은 ‘28개 언어로 82건 번역’되었다는 수치를 통해 설명된다. 특히 한강이 2016년 국제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번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번역의 양적 확대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부커상이라는 ‘제도적 승인’ 또는 ‘공인된 인정’의 결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자 단기간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간된 것이다. 2016년 부커상 수상 이후 노벨문학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번역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가 그 성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개별 작가의 번역 건수를 넘어서, 한국문학 전체의 해외 진출 성과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등의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수상이 안타깝게 불발된 입후보 내역까지 합하면 97건에 육박한다. (강홍민, 2024)

위 기사는 ‘수상 31건’, ‘입후보 97건’이라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성과와 높아진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번역 건수’와 마찬가지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수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얼마나 많은 제도적 승인과 공인을 얻었는가가 문학적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화의 논리는 국가 간 비교의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개별 작품이 현지 독자에게 어떻게 읽혔는지 혹은 번역의 질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누적 번역 종수와 연간 생산 규모라는 ‘덩치의 비교’다.

문예진흥원 시절까지 합하면 한국문학 3000여 종이 해외에 소개된 것으로 추산한다. 일본의 경우 2020년대 초반 2만에서 2만5000종 사이로 추산하더라. 한국문학이 한 해 200여 종 해외에 소개되는 수준까지 왔지만, 아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차형석, 2024)

여기서 수치는 한국문학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치를 드러내는 잣대가 된다. 즉, 번역의 ‘양’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국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지표이자, ‘일본과 같은 번역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이 시기 기사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도 관심이 확대되었다. 언론의 시선은 작가나 번역가 개인의 역량에만 머물지 않고, 번역을 뒷받침해 온 환경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노벨문학상은 작가 개인의 문학적 역량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특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서구권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쓰인 문학은 더더욱 그렇다. 양질의 번역가를 육성하고 작가가 해외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국내 출판사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오경진, 2024)

위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주체의 등장이다. 한국문학이 한글이라는 비서구권 언어로 쓰였다는 한계를 짚으며, 번역자를 키우고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일을 개인이나 출판사의 몫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노벨상 수상이라는 이번 성과는 개별 작가나 번역자에 대한 찬사에서 더 나아가, 지원 기관이 왜 필요하며 왜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날 정부 기관과 문학계는 ‘문학한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한강 작가가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를 처음 만난 게 2014년 번역원이 작가 파견을 지원한 런던 도서전”이라며 “지금까지 한강 작가에게 번역과 국제교류로 총 10억 원의 정책지원을 했는데, 이런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힘이 크다는 걸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2024a)

이처럼 성과의 배경을 다루는 기사들은 정부가 이끄는 공공 지원,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에 먼저 집중한다. 런던 도서전 참여나 정책 예산 투입 사례처럼, 언론은 번역자를 발굴하고 해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준 공공기관의 ‘꾸준한 도움’을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조명이 공공기관에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학 후원 역시 한국문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루어진다.

대산 신용호는 교보문고 입구에 “역대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를 걸고 한국인 수상자의 자리를 비워두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젊은 기자 곽효환이 “그 일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답하자, 대산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뭉클한” 문답이 그를 대산문화재단 설립 작업에 합류하게 했다. (차형석, 2024)

위 기사는 겉으로 보면 개인의 다짐을 담은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이 일화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해 온 민

간 후원 영역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이 오랫동안 하나의 상징적 목표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번역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성취를 위해 장기간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영역으로 의미화된다.

대산문화재단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 한강 작가의 대표작 9편의 번역 출판도 지원했습니다. 이들 작품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한국문학 번역 연구 출판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은 작품만 해도 550편, 해외출판된 작품은 400편에 달합니다. 대산문화재단이 우수한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해외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후원함으로써 한국문학 세계화를 돕는 ‘숨은 조력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문승현, 2024)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에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은 기존의 민간 지원 활동을 다시 불러와 수상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숨은 조력자’라는 표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지원 주체를 수상 이후의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한강의 수상은 공공과 민간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번역 지원을 하나의 축적된 과정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수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일부 기사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 현장의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 등 기존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번역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독자의 수요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 번역에 투자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번역원에 책정된 정부 예산은 사업비 기준 지난해보다 14% 줄었고 ‘해외 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 예산도 2019

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8억원에 그치다가 올해 20억 7000만원으로 절끔 올랐다. 이 중 소설 한 작품을 완역하면 약 800만~1200만원 정도를 주는 사업도 최근 없었고 작품 전체의 30~40% 정도 샘플 번역한 것에 약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경진, 2024)

“시 한편 번역 수당 고작 7만원, ‘제2의 한강’ 나오겠나” (유승목, 2024b)

이러한 기사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기존 번역 지원의 성과를 보여주는 근거인 동시에, 현재 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는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앞에서는 수상을 장기간 축적된 번역 지원의 성과로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제2의 한강’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동일한 수상이 기존 번역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예산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전문 번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도 이어졌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에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3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 김윤덕 의원은 “문학의 번역은 한글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나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홍, 2024)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추진은 번역자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전문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번역 지원을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언론의 관심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의 수용자에서 전파자로 확정되는 역사에 있습니다.” 오형엽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이 세계 문화의 주역에 섰지만 이번 노벨문학상으로 명실상부 한국문학이 K콘텐츠와 함께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채희, 2024)

외신도 한강 열풍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부에 진출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 이란 전망이다. AFP는 “오스카에 이어 TV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고 이제는 노벨문학상마저 가져갔다”면서 한류가 어엿한 세계 문화 속의 ‘메이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채희, 2024)

이처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담론은 번역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라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넘어,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지속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기사에서는 한국문학을 K-팝이나 K-드라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국 문화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타났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성취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하기 위한 번역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4.3 수상 한 달 이후: 수상의 공로에서 지속적 확산의 기반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한 달 이후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번역을 주요 주제로 다룬 기사는 총 16건으로 확인되었다. 수상 직후 한 달 동안 34건이 보도된 것과 비교하면 기사 수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언론 보도의 시의성과 화제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기

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번역 관련 보도는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연말 문화계 결산,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취임, 노벨상 수상 1주년, 한국문학 번역 본의 해외 판매 증가 등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번역이 다시 언론의 관심 대상으로 등장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높아진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번역과 출판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타났다.

노벨상 이후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작품이 번역돼 소개되고 더 많은 평가와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국내 문학작품 번역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2024)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외 판매 성과가 가시화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 판매 실적이 한국 문학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번역원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독자층이 확대되고, 유수의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 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들 출판사의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이 더해져 한국 문학의 해외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황재하, 2025)

두 기사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증가한 해외의 관심을 번역 문의, 해외 출판, 판매 증가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수상 직후에는 번역이 노벨문학상이라는 국제적 성취에 기여한 요인으로 주로 조명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수상으로 높아진 한국문학의 가시성이 다시 번역과 출판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수상 직후 제기되었던 번역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등장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번역 출판 지원제도 보완(기획번역, 번역자 권리증진), 3세대 번역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동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현안을 풀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권일, 2025)

수상 이후 높아진 해외의 관심은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이를 지속하기 위한 번역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수요는 높아졌지만, 이러한 관심을 실제 번역과 출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과 전문 번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이 시기의 언론에서 번역은 수상에 기여한 과거의 공로보다, 수상 이후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언론에서 문학번역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이 번역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이다. 수상 직후에는 번역이 한강의 국제적 성취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개별 번역자의 역량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후에는 관심이 국가와 민간의 지원 체계로 확대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번역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번역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설명되었다. 수상 한 달 이후에는 번역을 직접 다루는 보도가 크게 줄었지만, 번역은 노벨문학상으로 높아진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실제 해외 출판과 확산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즉, 수상 직후에는 번역이 ‘수상에 기여한 역할’로 주목받았다면, 이후에는 ‘수상을 가능하게 한 장기적인 지원의 성과’, 그리고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으로 번역을 바라보는 초점이 이동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노벨문학상 수상이 그동안의 국가 번역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작품의 번역과 출판을 지원해 왔으며,

노벨문학상 수상 역시 이러한 정책이 지향해 온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은 그동안 이루어진 번역 지원과 해외 교류 사업 등을 수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즉, 한강 개인의 성취가 오랜 기간 이루어진 국가의 번역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의 지원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번역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번역자를 양성하며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졌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번역역과 번역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기존의 지원 방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정책의 모범으로 굳어질 경우, 국제적 수상 가능성이나 해외 시장성을 미리 판단하여 특정 작가와 작품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번역 지원이 다양한 작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작품을 번역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하는 처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번역은 다양한 한국문학을 해외 독자에게 소개하는 문화적 활동이라기보다 국제적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좁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존 정책의 성공을 확인하는 결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문학번역 지원의 목표와 성과를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번역 언어 수나 출간 종수, 국제 문학상 수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표만으로 문학번역 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수상이나 시장의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작가와 작품에 번역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번역된 작품이 실제 해외 출판과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번역 지원의 중요한 성과 기준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작가나 작품의 수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다양한 작가와 작품에 번역과 해외 출판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가 지속적인 해외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의 문학번역 지원은 ‘제2의 한강’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다양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장에 진

입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언론이 번역과 번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수상 직후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친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문학번역을 바라보는 언론의 초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이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번역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과정도 확인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언론 가운데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설, 칼럼, 기고, 시론 등 논평적 성격의 자료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언론에 나타난 번역 담론 전체라기보다 뉴스 보도에서 나타난 번역 담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스 보도에 인용되는 정부 기관이나 번역 출판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분석 결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설, 칼럼, 기고 등 다양한 언론 장르를 포함하여 장르에 따라 번역과 번역 지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번역학계나 번역 출판 현장의 시각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하여 번역과 번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면, 국내 언론 담론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강의 수상 이후 번역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 작품 선정 기준 등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에서 강조된 번역과 번역 지원의 중요성이 실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강홍민. (2024. 10. 12.). 한강 ‘맨부커상’ 이후 한국문학 세계에서 주목받는

데 ‘번역지원’ 예산은 고작 20억원. 한경BUSINESS.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0120327b>

곽아람. (2024. 10. 11.). 노벨상 수상 뒤엔 번역의 힘... 한강 작품 낸 佛출판사 “언젠가 받을 거라 확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4/10/11/TBED2WOWGRHFRI XK4LE6XXJGOI/>

김민국. (2024. 10. 11.). 한강 노벨상에 번역가 테버라 스미스도 주목... ‘채식주의자’ 출판사 접촉에 홍보까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0/10/KWDIJ7S77JGQBGR5 YDSUB75YWY/

김용래. (2024. 10. 11.). 노벨문학상 영예는 번역의 쾌거이기도...“이제부터가 진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056100005>

김일창. (2024. 10. 11.). “한글날 다음날 한강 노벨상”...한국어 독학 英 번역가도 주목. 뉴스1. <https://www.news1.kr/life-culture/book/5564895>

나권일. (2025. 6. 23.). “10년 안에 또 세계적 문학상 받는 작가 나올 것”. 월간중앙.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77>

문승현. (2024. 10. 16.).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대산문화재단, 한강 노벨문학상 밀거름 ‘주목’. 인더뉴스.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66118>

박기홍. (2024. 10. 13.).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계기...내친 김에 ‘번역대학원 대학 설립’ 법안 발의 주목.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317191814171>

사지원. (2024. 10. 11.). “그동안 한국 문학 번역해온 시도가 결실 맺었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1010/130195021/1>

서혜림. (2024. 10. 11.). “한강, 검열 체면 맞선 작가”...‘작별하지 않는다’ 번역가 평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052000009>

송진원. (2024. 10. 11.). 한강 작품 번역 佛번역가 “그의 글은 언제나 나를 감동시켰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81300081>

오경진. (2024. 10. 16.). [단독] “노벨문학상 지원 필요” 호소에도 정부 외면... 번역 예산 제자리.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24/10/16/20241016008002>

유승목. (2024a. 10. 15.). 해외 한국문화원에 한국문학관 설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566941>

유승목. (2024b. 10. 16.). “시 한편 번역 수당 고작 7만원, ‘제2의 한강’ 나오겠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69237i>

정채희. (2024. 10. 20.). “세계 문학의 수용자에서 전파자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한경BUSINESS.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0170760b>

조문희. (2024. 10. 11.). [한강 노벨문학상] 한강 작품 번역가 “검열 체면에 맞선 작가 수상은 시적으로 구현된 정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11459001>

차형식. (2024. 11. 5.).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한국문학 번역의 힘.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54>

황재하. (2024. 12. 29.). [2025 문학계] 노벨상 한강 신작 기대...K문학 새해도 비상할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156500005>

황재하. (2025. 8. 6.). ‘한강 효과’에 K-문학 번역본 해외 판매량 2.3배로 늘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027200005>

허인희. (2024. 10. 11.). ‘아시아女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뒤엔 영국인 번역가 있었다.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92>

<2차 자료>

강수경. (2025). 러시아의 K-문학, 한류 문학과 ‘상상되는’ 한국. 노어노문학, 37(2), 29-59.

고윤경. (2025). 젠더 번역과 여성문학: 한강 『채식주의자』의 읽기 어려움을 읽기. 아시아여성연구, 64(2), 9-45.

- 김지윤. (2025). 통사구조와 어휘를 통해 본 리듬, 그리고 번역: 한강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3, 119-137.
- 등옥룡, 류의. (2026). 정태적 동태적 문화소의 틀에서 본 「희랍어 시간」 중역(中譯) 전략과 정보성 연구. *국어국문학*, 215, 257-293.
- 박문정. (2024).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이탈리아 언론. *외국문학연구*, 97, 171-196.
- 박정원. (2024). 중국에서의 한강 작품 수용 분석. *외국문학연구*, 97, 273-296.
- 서유정. (2024). 문학 언어의 증명: 독일 언론과 문학계의 한강 문학에 대한 평가. *외국문학연구*, 97, 63-87.
- 심재기. (2003).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정책: 문학번역가 양성을 위한 제언. *독일언어문학*, 22, 347-371.
- 유선비. (2024). 한강의 문학과 체코의 시선. *외국문학연구*, 97, 231-250.
- 유한내. (2017). 세계문학: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나아갈 길. *통역과 번역*, 19(2), 131-152.
- 이형진. (2024). 영어권 번역문학상의 특징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외국문학연구*, 93, 113-144.
- 임소라, 성효정. (2024). 한강 문학과 포르투갈어 번역 수용 양상. *외국문학연구*, 97, 131-170.
- 조재룡. (2012). 정인섭(鄭寅燮)과 번역의 활동성: 번역, 세계문학의 유일한 길. *민족문화연구*, 57, 515-568.
- 천중성, 이준호. (2024). 국내 언론과 KCI 학술 논문에 나타난 ‘기계번역’ 담화 분석. *번역학연구*, 25(2), 69-97.
- 최성은. (2024). “뺏속까지 관통하는 소설” — 폴란드 언론에 비친 한강의 문학. *외국문학연구*, 97, 197-229.
- 하은선. (2024).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문장의 힘: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 *컬투라*, 125, 73-75.
- 홍재웅. (2024). 스웨덴이 본 한강의 문학: 노벨문학상과 그 너머. *외국문학연구*, 97, 13-40.
- Anderson, B. (2013). The unrewarded. *New Left Review*, 80, 99-108.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aun, V., & Clarke, V. (2019). Reflecting on reflexive thematic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11(4), 589-597.
- Carbó-Catalan, E. (2023).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intellectual cooperation and cultural diplomacy: The Ibero-American collection (1930-1940). *Translation in Society*, 2(1), 15-32.
- Casanova, P. (2004).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J. (2025). Scaling the periphery: Han Kang's Nobel Prize and the politics of literary recognition. *Gnovis Journal of Communication, Culture & Technology*, 25(1), 107-127.
- English, J. F. (2005). *The economy of prestige: Prizes, awards, and the circulation of cultural valu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dberg, A., & Vimr, O. (2022). Translation support policies vs book industry practice in non-English settings. *Perspectives*, 30(5), 753-759.
- Hu, Y., & Xiong, H. (2026). Translation and recognition of Han Kang in China. *Korea Journal*, 66(2), 197-237.
- Jewell, R. (2000). The Nobel Prize: History and canonicity. *Th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33(1), 97-113.
- Jiang, J., & Ma, H. (2022). Book translation policy of China Foreign Languages Bureau from 1949 to 1999: A historical and bibliometric perspective. *Perspectives*, 30(5), 760-775.
- Kim, Y. (2025). Translating “intense poetic prose” in world literature: Comparing Han Kang's *Greek Lessons* and its translation.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73, 27-50.
- Kvirikashvili, A. (202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Georgian literature: Georgia as the guest of honour at the 2018 Frankfurt Book Fair. *Perspectives*, 30(5), 776-791.
- Lee, H. J. (2026). Expanding boundaries: Inter-lingual and inter-semiotic translations of Han Kang's Korean novel, *The Vegetarian*. *Tamkang Review*, 56(2), 31-57.

- Levitt, P., & Shim, B. S. (2022). Producing Korean literature (KLit) for export.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9(1), 1-25.
- Meylaerts, R. (2011). Translation policy.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2, pp. 163-168). John Benjamins.
- Sapiro, G. (2016). How do literary works cross borders (or not)? A sociological approach to world literature. *Journal of World Literature*, 1(1), 81-96.
- Sapiro, G. (2023). The symbolic economy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ow it counters or reproduces modes of domination. *Poetics*, 101, 101823.
- Schwartz, C., & Edfeldt, C. (2022). Supporting inter-peripheral literary circulation: The impact of institutional funders of Italian and Portuguese language literatures in Sweden. *Perspectives*, 30(5), 811-827.
- Shim, B. S. (2023). A “K” to bridge Korea and the world: The state-led formulation of K-lit and its contradi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20(1), 57-76.
- Venuti, L. (2005). Translation, history, narrative. *Meta*, 50(3), 800-816.
- Vimr, O. (2020). Supply-driven translation: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demand. In R. Chitnis, J. Stougaard-Nielsen, R. Atkin, & Z. Milutinovic (Eds.), *Translating the literatures of small European nations* (pp. 48-68). Liverpool University Press.

An analysis of Korean media discourse on literary translation after Han Kang's Nobel Prize in Literature

Han-Nae Yu

International Divis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literary translation was represented in the Korean media following Han Kang's 2024 Nobel Prize in Literature. It analyzes Korean news coverage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award through April 2026, dividing the material into three periods: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the first month after the award, and the subsequent period through April 2026. The analysis traces how the focus of translation discourse changed across these periods. The findings show that immediately after the award, media coverage focused mainly on individual translators and their contribution to Han Kang's international success. In the following month, attention shifted toward translation support systems, including government funding, translation institutions, and translator training. Later coverage increasingly discussed translation as part of the broader infrastructure needed for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Nobel Prize was also often presented as evidence of the success of Korea's long-term translation support policies and as grounds for maintaining such support. By examining these shifts over time, this stud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media discourse on literary translation evolves in response to a major international literary event.

Keywords: Nobel Prize in Literature; literary translation; media discourse; translation support policy; Korean literature

키워드: 노벨문학상; 문학번역; 언론 담론; 번역 지원 정책; 한국문학

유한내(<https://orcid.org/0009-0002-0277-2445>)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ambrosia14@gmail.com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